

인사말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임자의 눈빛에 서로의 기운이 더해져 훈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워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본인과 가족 그리고 종단을 위해서라도 건강에 유의하길 당부합니다.

오늘 인사이동에 따른 일반직 종무원들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여기 모인 차팀장들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교역직 스님들 역시 종무원들과 함께 힘껏 각 부서의 사업과 내용을 점검하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34대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실장스님들이 각 부서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부터는 제34대 집행부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단이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소임자들 만의 의지로 움직여 갈 수 없듯, 제34대 집행부의 정책 역시 안으로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여망과 밖으로는 시대와 사회가 불교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주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세세히 살피기 바랍니다

다. 아직은 무던한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종책사항을 잘 갈고 다듬어 금강석으로 빛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런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하자는 의미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 함께 보고 들은 그대로 현재 우리 종단의 현실을 나타내는 각종 수치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의 지혜는 이 현실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12월 한 달은 종단을 위해 문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12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